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8월

선교편지 제 134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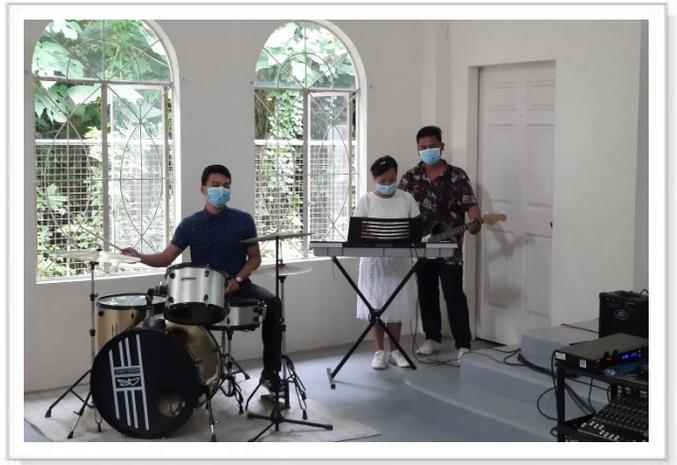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곳은 정도에 따라 지역을 5 단계로 나누어 방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다바오는 상황이 심각하여 통행 제한과 요일별로 봉쇄를 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디고스 예일교회가 위치한 디고스는 코로나 피해 상황이 다바오 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 인원의 50%의 제한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화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개월만에 디고스 예일교회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규정대로 체온계, 알코올, 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성전 안의 의자들도 1.5m 간격으로 배치 하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교회 내에서 친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교 음식 대신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심방을 통해서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안타깝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과 노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배 전 토요일에는 사역자들과 함께 원할한 예배를 위한 사전 연습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움츠려 있는 이 때에, 주일 예배에 과연 몇 명이나 참석 할 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3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예배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성도들도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던지 아침 일찍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예배당으로 들어 오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지고, 반가움을 나누는 방법도 생소하고, 마스크를 하여 얼굴도 가리워져 있지만, 기쁨이 가득한 모습은 마스크로 가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언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봄 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찬양을 해야 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찬양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역경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찾는 귀한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한번도 상상해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형태로 예배와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55:6)**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아팔라야 예일교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12월 1일에 감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진도 6 이상의 지진으로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과 함께 구조 보강을 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3 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 되었다가, 최근 마을 전체가 잠기는 홍수로 인하여 성전 바닥 공사를 다시하고, 드디어 7월 24일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작업자들을 보내 주셔서 공사 자체는 참으로 순적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14 명의 작업자들이 아침 7 시에 기도하며 공사를 시작하고, 끝나는 날까지 단 한사람도 안전 사고가 없었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성전 건축을 기대하며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팔라야 교회는 전체 면적이 615 m<sup>2</sup> (약6,500 ft<sup>2</sup>)로서 디고스예일교회보다 약간 크지만, 구조는 거의 흡사합니다. 예배당과 2 개의 교육실이 한 건물로 되어 있고, 별도의 건물에 현지 교역자가 거주할 수 있는 2 개의 방과 부엌으로 된 사택, 사무실, 그리고 2 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의 현지 복음화를 위하여 매우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학원사역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없어서, 학생들의 부모와 마을 주민을 복음화 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비품을 구비하고, 8월 중으로 헌당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팔라야 사역을 열어가려 합니다.

약 10 여년전 디고스의 마띠고등학교에서 20 여명의 고등학생으로 현지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길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마침내 디고스 예일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지, 매일 매일이 기적과 같습니다. 이제 아팔라야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 할 때에 참으로 가슴이 설레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의 역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좋다고 선교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드로아의 좌절을 경험 하였지만, 성령의 선교는 마게도니아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미진진한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오로지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 갈 뿐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신 모든 분들께 좋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현지 복음화를 위하여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7)**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